

에스라·느헤미야서에는 다양한 에스라상 - 학사, 제사장, 혹은 제사장 겸 학사 - 이 제
공되어 있다. 다양한 에스라상은 그에 대한 신학적 해석이 덧붙여진 결과이다. 본 연구
에서는 역사적인 에스라 상과 후대의 해석되어진 에스라 상을 구분하여 밝히고자 하였
다. 이와 함께 역대기 역사서의 형성과정, 삶의 자리와 신학적 의도를 이해하고자 한다.

에스라는 누구인가?

김 윤이 | 서울기독교대 감사

1. 문제제기

구약 성경에는 위대한 인물들 - 모세, 다윗,¹⁾ 솔로몬 등과 같은 인물들 - 에 대해서 당대나 혹은 그 직후에 그들의 행적을 기록하였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많은 신학자들(성경 속의 신학자)이 이들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계속 덧붙였다. 이들의 실제 역사적인 상에 후대의 해석상이 덧붙여져서 신화적인 인물들로 확장되어졌다. 에스라 역시 당대 혹은 그 직후에 행적이 기록되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신학자들이 에스라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고 있다. 에스라는 학사로 묘사되기도 하고, 때로는 제사장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때로는 제사장 겸 학사로 묘사되기도 한다. 이러한 용어들은 당대 혹은 그 직후의 신학적 해석과 후대의 신학자들의 해석이 덧붙여진 결과이다.²⁾

1) 역대기 역사서에서 특히 다윗 왕은 매우 '이상적인 왕'으로 재해석되어 기술되고 있다. 임 태수, 「역대상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41-54쪽 참조;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학교 신학박사학위논문 2006년 참조.

2) 베메쉬와 왈트케는 구약시대에는 신앙과 관련해 어떤 새로운 사회 종교적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에 새로운 문학작품을 제작하거나 기존문서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끊임없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G. Vermes, *Scripture and Tradition in Judaism: Haggadic Studies*, (Leiden: E. J. Brill, 1973), 176쪽. 오 원근, "제 2성전기 개찬성경의 유대주석전통상의 위치," 「구약논단」 제 22집(2006년 12월), 129-142쪽 참조.

에스라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도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이어스는 에스라를 제사장 겸 학사로 간주하고 있지만 그의 제사장적 역할보다는 '학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주석하였으며,³⁾ 노트(M. Noth)⁴⁾와 트론트비트(M. A. Throntveit)⁵⁾는 에스라를 학사로 간주하고 제사장으로 기술한 구절은 후대의 첨가로 보았으며, 민 경진은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으며, 당시의 역사적 정황으로 미루어 보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었다고 확정한다.⁶⁾ 에스라에 대한 이러한 다양한 이해는 노트가 암시한 바와 같이⁷⁾ 역사적인 에스라 상과 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해석되어진 에스라 상을 혼용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인 에스라 상과 후대의 해석되어진 에스라 상을 구분하여 밝히고자 한다. 즉 이 용어들에 반영된 에스라의 역사적인 모습과 후대의 신학적 해석을 분리하고, 그 신학적 해석이 덧붙여진 역사적 의도와 동기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역대기 역사서의 형성 과정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으며, 삶의 자리와 신학적 의도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⁸⁾

-
- 3) 제이콥 엠 마이어스, 「에스라-nehemiah (국제성서주석 14)」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141-142쪽, 원제는 Jacob M. Myers, *Ezra-Nehemiah*,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New York, Garden City, 1981)
- 4) 마틴 노트, 「전승사적 연구들」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출판사, 2004). 원제는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1943: 1957²),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67³), 141-142쪽 참조.
- 5) 트론트비트에 의하면 에스라-nehemiah는 에스라의 제사장으로서의 면모에 거의 강조를 하지 않고 있으며, 후기 내러티브 개념상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학사 즉 '유대 업무를 맡은 비서관'으로 보았다. 그러나 후대의 독자들은 에스라를 '제사장', '서기관', '율법' 등 제 2성전 시대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들곤 하였다. 참조 마크 A. 트론트비트, 「에스라-nehemiah (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원제는 M. A. Throntveit, *Ezra-Nehemiah* (Interpretation), (John Knox Press, 1992), 75-76쪽, 81-82쪽, 참조.
- 6) 헨슨도 에스라를 사독계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다. Hanson, DA, 270쪽. 민 경진, 「에스라-nehemiah 연구」 (서울: 한울출판사, 1995), 108-11쪽 참조.
- 7) 트론트비트도 이를 암시한 바 있다. 트론트비트, 윗글 참조. 그러나 에스라의 다양한 호칭들과 연관해서 문서층별로 객관적인 고찰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역대기 역사서 편집층 분류에 관해서는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제 22집 (2006년 12월), 83-88쪽 참조.
- 8) 에스라-nehemiah를 역대기 역사서로 분류하여 고찰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 태수, 윗글, 35-40쪽 참조; 최 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제 27집 (2008년 3월), 138-141쪽 참조; W. Brueggemann, 「구약신학과의 만남」 (차 준희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7), 603쪽;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80-97쪽 참조.

2. 본문분석(Literarkritische Analyse)

구약성서에서 에스라에 대한 언급은 역대기 역사서에만 나타나며, 총 25회가 언급되고 있다: 스 7: 1, 6, 10, 11, 12, 21, 25; 스 10: 1, 2, 5, 6, 10, 16; 느 8: 1, 2, 4, 5, 6, 9, 13; 느 12: 1, 13, 26, 33, 36. 이 가운데 그의 직무(칭호)와 연결하여 학사(ספר)9)로 6회(스 7: 6; 스 7: 11b; 느 8: 1, 4, 13; 느 12: 36), 제사장(הכהן)으로 4회(스 7: 5¹⁰); 10: 10, 16; 느 8: 2), 제사장 겸 학사(הספר הכהן 스 7: 11; 느 8: 9; 12: 26; ספר קהנא¹¹) 스 7: 12, 21)로 5회 언급하였으며, 나머지는 호칭 없이 이름만 언급하였다.

	학사	제사장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7: 6, 11b	(7: 5); 10: 10, 16	7: 11a(히); 7: 12, 21(아)
느헤미야	8: 1; 8: 4; 8: 13; 12: 36	8: 2	8: 9; 12: 26(아)

이러한 칭호들은 역대기 역사서의 다양한 문서 편집층에 산재되어 언급되었다. 역대기 역사서에는 다양한 시대로부터 전승된 ‘자료층’(에스라의 동시대나 바로 직후의 비망록 포함)과 ‘두 차례의 편집층’이 있으며, 여기 소개된 15회의 칭호들은 이러한 문서층들에서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

9) 히브리어로 ספר(소페르/서기관)은 그리스어로 ‘그람마투스’라고 일컫는데, ‘소펠’은 ‘왕실의 고위 관직자중의 하나인 사관’ 또는 ‘율법의 기록자’라는 뜻으로 구약성서에 여러 차례 언급되어 있다. ‘공식 관직’의 뜻으로 쓰인 예로는 삼하 8: 17; 20: 25; 왕하 12: 11(10); 18: 18, 37; 렘 52: 25 등이 있고, 율법이나 다른 글의 ‘기록자’의 뜻으로 쓰인 예로는 렘 36: 26; 스 7: 11 등이 있다. 소페르 (ספר)는 에스라-느헤미야에서 ‘학사’로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서기관’으로 되어 있다. 고대 근동에서 서기관은 현대의 ‘국무장관(삼하 20: 25)이나 ‘비서실장(삼하 8: 17; 왕하 22: 3-13) 등을 가리키는 관직명이었다. 한편 ‘율법에 익숙한’이라는 표현은 법을 시행할 수 있는 공직의 전문가였다는 뜻이다. 그런 의미에서 학사라는 용어는 왕이 임명한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직 명’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장 춘식, 『에스라/느헤미야(창립 100주년 기념 성서 주석 14)』(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152-153쪽을 참조하라.

10) 스 7: 2-5은 에스라에 대해서 제사장(הכהן 하코헨)으로 직접적인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를 대제사장 아론 계열의 사독 5대 손임을 밝힘으로써 ‘예루살렘의 정통 사제 가문’으로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에스라가 제사장으로 직접 언급된 곳은 총 3회이지만, 내용적으로 볼 때 그의 제사장적인 소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곳은 4회가 된다.

11) 한국어 성경에는 학사 겸 제사장으로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으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다.

다.¹²⁾

이러한 호칭이 소개되는 단락들은 아래와 같이 모두 일곱 단락이다: 스 7: 1-10; 스 7: 11-26; 스 10: 1-44; 느 7: 72b - 8: 12; 느 8: 13-18; 느 12: 1-26; 느 12: 27-43. 이를 문서층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 스 7장 1-10절(스 7: 5; 스 7: 6 - 2회)

스 7장 1-5절에서 에스라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는데, 에스라를 대제사장 아론과 사독 계보에 속하는 예루살렘 정통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초기 편집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스 7: 5). 이어 스 7장 6-10절에서는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협력자들(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인, 찬양단, 성전문지기, 막일꾼들)을 소개하면서, 레위인의 역할이 분화되고 확장된 모습을 보여준다는 점과 하나님의 토라에 대한 에스라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후기 편집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스 7: 6).

2) 스 7장 11-26절(스 7: 11a; 스 7: 11b; 스 7: 12; 스 7: 21 - 4회)

스 7장 12-26절은 아람어로 기록된 칙령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신뢰할만한 자료로 간주된다. 그러나 그 내용을 고찰하면 여러 문서층이 혼재되어 있다. 아닥사스다의 귀환 명령인 스 7장 12-16절(스 7: 12)과 서부 지방의 재무관들에게 내리는 명령과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을 페르시아의 국법¹³⁾으로 시행하라는 명령 구절인 스 7장 21-26절(24절 제외)은 자료층으로(스 7: 21)¹⁴⁾ 분류된다. '제사'를 강조하고 있는 스 7장 17-20절은 초기 편집층으로 분류되며, 그 역할이 분화 확대되어 범-제사장 계층의 권한이 강조된 스 7장 24절은 후기 편집층으로 분류

12)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와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80-97쪽 참조, 편의상 본 연구에서는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은 '초기 편집층'으로 역대기 역사서의 후기 편집층은 '후기 편집층'으로 축약하여 명명하였다.

13) 전통적인 규범을 가지는 도덕법이나 종교법을 포함하여 제국의 국법으로서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법률적인 통치력을 갖게 되어 위반 시 추방형, 징역형, 몰수형, 사형 등도 포함하는 법률적 강제력을 가진 법을 의미한다(스 7: 26).

14) 황제의 명령들인 페르세폴리스 보고의 서판들 중 특히 Nos. 4-8과 거의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다. 마이어스, 윗글 143쪽 참조.

된다. 스 7장 11절의 표제는 자료층과 초기 편집층과 후기 편집층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초기 자료층의 표제는 스 7장 11b절, 후기 편집층에 속하는 개정된 표제는 스 7장 11a절(스 7: 11a; 스 7: 11b).

3) 스 10장 1-44절(스 10: 10, 16 - 2회)

스 10장 1-17절에 있는 이 땅의 여인들과의 통혼에 대한 '제사장' 에스라의 애통에 대한 백성들의 응답(계약 선언)과 스 10장 18-44절에서 이방 여인을 내보내고 '속건제'를 드리는 구문은 모두 초기 편집층에 속한다(스 10: 10, 16).

4) 느 7장 73 - 8장 12절(느 8: 1; 8: 2; 8: 4; 8: 9 - 4회)

느 7장 73절 - 8장 12절에는 다양한 본문의 발전 형태를 짐작하게 한다. 먼저 느 8장 1절과 4절에서 에스라의 율법 선포와 가르침을 중심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자료층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에스라를 제사장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느 8: 2)과 제의적 집행을 수행한다는 점(느 8: 6)은 초기 편집층의 특징이 보이며, 느 7장 73절에 제시된 확대된 레위인들의 목록과 '학사' 에스라가 느헤미야와 레위인들과 협력하여 '은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모습은 후기 편집층으로 분류될 수 있다(느 8: 9).

5) 느 8장 13-18절(느 8: 13 - 1회)

초막절 실행에 대한 서술 자체는 자료층에서 기인되었을 것이며(느 8: 13), 느 8장 - 10장 전체의 내용(언약의 갱신)과 연결하여 고찰될 때, 초막절의 실행은 곧 토라의 실행으로서 후기 편집층의 특징이 강하며, 느 8장 13절의 범-민족적 통합의 특징과 8장 17절의 '은 회중'에 대한 관심도 후기 편집의 특성이다. 그러나 느 8장 13-17절의 대부분은 '포로 귀향민들 중심의 신학적인 해석'이 강하게 드러나 있으므로 초기 편집층에 속한다.

6) 느 12장 1-26절(느 12: 26 - 1회)

느 12장 1-26절에서는 분화된 레위인들의 명단과 더불어서, 제 1 차 스룹바벨의 귀환 세대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세대의 명단이 서로 동일 선

상에서 기록되어 최종 편집자의 ‘온-이스라엘’의 총화적 의도가 드러나 있으므로 후기 편집층으로 분류할 수 있다(느 12: 26).

7) 느 12장 27-43절(느 12: 36 - 1회)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여 제사장들, 레위인들, 방백들, 느헤미야가 총 협력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는 느 12장 27-43절은 ‘온-이스라엘’의 총화적인 역사 서술로서 후기 편집층에 속한다. 그러나 느 12장 31절 등의 일인칭 화법은 자료층(느헤미야의 회고록)에서 기인된 것이다(느 12: 36).

8) 중간 종합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에스라는 ‘학사’로 때로는 ‘제사장’ 혹은 ‘제사장 겸 학사’라는 호칭으로 불렸으며, 여러 문서층에서 각각 다른 위상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첫째, 스 7장 11-26절(스 7: 11b; 스 7: 12; 스 7: 21); 느 7장 73 - 8장 12절(느 8: 1; 8: 4); 느 8장 13-18절(느 8: 13)은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자료층에 속하는 본문들로, 여기서 에스라는 페르시아 국왕 아닥사스다의 공식적인 비서관(ספֿר שַׁפָּר)으로서 유다의 율법을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시행하며 귀향민들을 독려하는 ‘학사’로서의 역할을 한다.

여기에 속하는 본문들은 이미 후기의 편집지들에 의해 개정되어 초기 자료층의 모습을 분명히 찾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스 7장 12절과 21절에서는 아람어로 ‘제사장 겸 학사’로 나오지만, 이는 역대기 역사서 후기 편집자의 확장된 이해로 추정된다.

둘째, 스 7장 1-5(스 7: 5); 스 7장 17-20절; 스 10장 1-44절(스 10: 10, 16); 느 7장 73 - 8장 12절(느 8: 2)은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에 속하는 본문들로서, 여기에서는 에스라가 제사장임을 강조한다. 그래서 그를 학사(자료층에서 기인된) 또는 제사장으로 부르며, 에스라의 제사장성 특히 ‘사독 계열의 정통 사제 계열’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그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통혼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이 강조된다.

셋째, 스 7장 6-10절(스 7: 6); 스 7장 11-26절(스 7: 11b); 느 7장

73 - 8장 12절(느 8: 9); 느 12장 1-26(느 12: 26); 느 12장 27-43절(느 12: 36)은 역대기 역사서의 후기 편집층에 속하는 본문들로, 여기에서 에스라는 학사로, 제사장으로 또는 제사장 겸 학사로 그 호칭이 혼용되어 나온다. 그러나 후기 편집층에서 에스라는 자료층 혹은 초기 편집층과는 달리, 더욱 통합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매우 확대된 학사'로서 레위인들과 총 협력하여 토라를 가르치며 온-이스라엘의 총화를 이루는 역할을 한다.

에스라의 호칭에 관련된 본문을 문서층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층	초기편집층	후기편집층
에스라	7: 11b(학사) 7: 12(제사장, 학사)* 7: 21(제사장, 학사)	7: 5(제사장) 10: 10(제사장) 10: 16(제사장)	7: 6(학사) 7: 11a(제사장, 학사)
nehemiah	8: 1(학사) 8: 4(학사) 8: 13(학사)	8: 2(제사장)	8: 9(제사장, 학사) 12: 26(제사장, 학사) 12: 36(학사)

* 7: 12(제사장, 학사)¹⁵⁾

3. 역사적인 에스라상 - '학사'로서의 에스라상

1) 본문의 내용과 해설

위의 분류 표에서 나타나듯이 자료층의 본문들에서 에스라는 공히 페르시아에서 파견된 '학사'로서 기록되어 있다: 학사 에스라에 대한 소개(스 7: 11b), 아닥사스다의 귀환 명령 (스 7: 12-16), 서부 지방의 재무관들에게 내리는 명령(스 7: 21-23), 에스라에게 율법을 페르시아의 국법으로 시행하라는 명령(스 7: 25-26), 학사 에스라의 율법 선포(느 8: 1-4), 초막절 실행(느 8: 13). 학사 에스라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 특이점 중 하나는 1차 귀환 공동체의 '제사장 예수아'와는 다르게 그에게는 '페르시아의 학사'로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국법으로 시행하는 역할이 부과된다는 점이다. 그가 페르시아의 학사로 파송을 받고 귀환할 때에, 제사장의 숫자(1,496명)는 예수아의 귀환 때의 숫자(4,289명)보

15) 자료층에서 에스라가 제사장 겸 학사로 명시된 곳이 있으나(스 7: 12, 스 7: 21), 제사장이라는 용어는 초기 편집자의 가필로 간주해야한다- 4장 참조.

다 훨씬 적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레위인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에, 에스라의 처음 자료층의 직임(역사적인 호칭)은 모든 제사장들을 이끄는 '정통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그 기능이 확대된 학사'보다는, 페르시아로부터 공식적으로 백성들에게 율법을 국법(ἰσραῆλ 다트 7: 12, 14, 21, 25, 26)¹⁶⁾으로 실행하도록 임명받은 '페르시아의 학사 혹은 대사'(כֹּהֵן סַפָּר/서기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¹⁷⁾

구약 본문 전래 과정에 대한 연구에서 김 경래는 에스라를 구약정경의 본문들을 전수했던 '초기 서기관들' 중 하나로 간주하고 있다.¹⁸⁾ 그에 의하면 기원전 4-6세기 중에 기존의 구약성서 본문에 대한 '필체 전환 작업'이 있었으며, 이때 활동한 이들이 바로 마소라 학자들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서기관들'이라는 것이다.¹⁹⁾ 이러한 서기관들 중 가장 대표적 인물로서 율법을 새롭게 재정립한 사람이 에스라라고 할 수 있으며, 스 7장 25-26절에 따르면 학사 에스라의 임무 중 가장 우선적인 것은 율법을 국법(ἰσραῆλ 다트/ 칙령, 조서)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에스라 7장 12, 21, 25, 26절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번역되고 있는 '다트'는 히브리어로 토라가 아니며, 그것은 공식적으로는 페르시아 정부가 인정하는 '다트'이다.²⁰⁾ 아닥사스다 왕은 율법을 국법으로 반포해서(스 8: 36) 유다 백성들을 통치하는 우호정책으로 삼았던 것이며, 에스라의 공식적인 임무는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다.

2) 삶의 자리

-
- 16) 스 8: 36 참조; 아람어 다트(ἰσραῆλ)는 조서, 명령, 포고령, 규례 등으로 번역된다. 윌리엄 L. 할러데이 편집, 「히브리어 아람어사전」 참조.
 17) 그는 아닥사스다의 편지에서도 사파르(סַפָּר)로 불리고 있으며(스 7: 12),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에 이미 '아훼의 계명과 율례의 학사'(스 7: 11b)로 인정되고 있다. 각주 9)참조.
 18) 김 경래, "구약 본문 전래 과정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제 1호, 149쪽 참조.
 19) 이러한 서기관들의 활동을 세밀히 추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은 낱말을 띄어 쓰면서 몇 글자의 '중지형'을 창안해 내고, 또한 일반인들을 위하여 몇몇 자음 글자를 모음으로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김 경래,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제 1호, 120-121쪽 참조.
 20) 스 7: 12, 21, 25, 26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번역되고 있는 히브리어는 '토라'가 아니라, '다타'로서 '칙령, 규례 조서, 명령'의 의미로서 일반적인 민법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 H. G. M. 윌리엄슨, 「에스라-느헤미야 (WBC주석 16)」(조 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8) 49-53쪽 참조. 원제는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16), (Waco, Texas: Word books, 1985).

역사적인 자료층에서 '유대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페르시아의 학사(공식 비서관)'로서 에스라의 주요업무는 유대의 정황을 살펴 유대의 전통법인 율법을 '국법'(다타)으로 실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페르시아의 국법으로서의 율법의 실행에 충실한 학사 에스라의 삶의 자리는 다분히 '친-페르시아'적이다. 아닥사스다²¹⁾시대에 유다로 파견된 에스라의 임무는 페르시아 제국의 정책과 관련해서 볼 때, 제국의 안녕과 깊은 관련이 있다(스 6: 10; 7: 23). 그 당시 이집트는 페르시아의 통치권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위치로 부상하고자 했기 때문에, 페르시아의 왕들은 이집트를 견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유다 친화적인 정책들을 수행함으로써 페르시아의 변방을 효과적으로 수비하고자 하였다. 또한 기원전 4세기 이후 이집트에 고무된 페니키아 해안 도시들과 페르시아의 무력 충돌들은 유다에 직접적인 군사적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지라도 정치적으로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²²⁾ 이집트와 헬라 세력 등에 의한 제국 체제의 위기로 인해서 페르시아는 유다 땅과 수리아 전반에 안정을 회복시키고자 도모하였으며,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에스라를 예루살렘에 학사로서 파견하게 된 배경이다. 대 제국 내에서 매우 민감한 지역인 팔레스타인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에스라와 같은 유대의 종교법에 해박한 인물이 페르시아의 공식적인 학사로서 파견된 것이다.

3) 학사로서의 에스라의 활동내용과 신학적 의미

페르시아에 의해서 파견된 학사 에스라는 유다에 율법을 실행하며 하나

21) 아닥사스다 1세(465-424)인지 혹은 아닥사스다 2세(404-358)인지에 대한 논쟁은 구약의 역사적인 난제이다. 하지만 국제적인 범위 안에서 이스라엘에 미치는 상관관계는 두 왕의 시대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두 왕 모두 이집트와 헬라 세력 등에 의한 제국 체제의 위기로 인해서 페르시아인들은 유다 땅과 팔레스타인 전반에 안정을 회복시키는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아닥사스다 1인 통기마누스 때에 페르시아는 헬라인들의 공격에 시달려 결국 에게해를 포기하는 '칼리아스 조약(449)을 맺게 되고 이집트의 반란(460)과 메가비주스의 반란(449)에 직면하게 되는 등 제국 체제의 약화가 시작된다. 아닥사스다 2세인 므네몬 시대에도 제국은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이집트는 독립했고(401) 그런 상태는 60년 동안 지속된다. 외교적인 노력으로 헬라에 대한 그의 통치가 다소 안정화될 무렵부터는 유프라테스강 서부의 거의 전 지역이 반란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결국 므네몬은 독립을 유지하고 있는 이집트를 제외하고는 제국의 판도를 그대로 유지한 채 사망하였으며, 제국 내부의 약세는 뚜렷해졌다.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박 문재 옮김)(서울 :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1993) 514-515쪽, 549-555쪽, 562-563쪽 참조; 마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박 문재 옮김)(서울 :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2001), 405쪽 참조.

22) 존 브라이트, 윗글, 514-515쪽, 562-563쪽 참조. 마틴 노트, 「이스라엘 역사」, 405쪽 참조.

님의 통치와 제국의 통치를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즉 신앙적인 전통법이 현실적인 국법으로 실행되는 데 있어서 신학적인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제공한다. 사실상 포로 후기 새로운 질서에 대한 추진력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포로 귀향민들로부터 나왔다. 그들은 페르시아 정부로 하여금 유대 땅의 상황을 안정시키고 팔레스타인을 재편하도록 설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의 학사였던 에스라는 바로 그러한 역할의 중심에서 율법을 실행하며 유대 땅을 재편성하고 귀향민들을 독려하여 그들의 삶을 토라 전승과 예언자들의 전승과 신명기 전승²³⁾과 연결시키고 있다. 정치적인 관점으로 볼 때 에스라는 분명히 페르시아의 관리로서 제국의 안녕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부임하여 법을 집행한 것이지만, 유대 공동체 내에서 그의 율법 제정 활동은 선조들의 신앙을 새로이 부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신앙적 전통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⁴⁾ 본토로 귀환한 유대인들에게 바벨론의 거주지에서 살 때보다 무엇인가 새로운 것이 있어야만 했으며, 그것을 충족시켜준 주요 요소가 바로 '율법의 확립'이었다. 만일 학사 에스라의 이와 같은 활동 - 율법의 제정과 실행 - 이 없었다면, 귀환한 유대인들은 그들의 전통적인 신앙 유산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채, 한낱 역사적 유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²⁵⁾

4. 역사적으로 해석된 에스라상 - '제사장'으로서의 에스라상.

1) 본문의 내용과 해설

초기 편집층인 스 7장 1-5절에서 에스라는 사독의 5대 손이고 아히둡의 6대 손이며, 아론의 16대 손으로 소개되고 있다(스 7: 1-5). 그런데 사독을 아히둡의 아들로 본 것과 사독이 아론의 후예라는 것은 구약의 다른 문서와 역대기 사이의 불일치로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²⁶⁾ 역대기

23) 예를 들어 스 7: 25에 법관과 재판관을 임명하는 사법제도(신 1: 9-18; 16: 18; 17: 7-13)와 지혜와 율법을 병행시키는 것(신 4: 6; 참조 시 37: 30-31)은 신명기의 영향이 분명하다. 트론트비트, 윗글, 160쪽 참조.

24) 예를 들어서 고레스의 아람어 칙령에서 포로들이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었다(6: 10). 그러나 히브리어 칙령에는 이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성전 건축은 오직 예언의 응답이었다. 장 춘식, 「에스라-느헤미야 성서주석」(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62-63쪽 참조.

25) 제이콥 엠 마이어스, 윗글, 64쪽 참조.

26) 사독이 아론 계열이라는 언급은 역대기 역사서에만 나타나며(대상 6: 1-12, 49-53; 24: 3), 구약의

역사서의 초기 편집자는 전승과의 혼란을 야기하면서까지 이처럼 분명하게 에스라를 사독 계열일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 아론 반열의 '제사장'(יְהוֹנָדָה 하코헨)으로 소개하고 있으며(스 7: 5; 10: 10, 16; 느 8: 2), 더 나아가 정통 제사장인 에스라가 통혼으로 더럽혀져 있는 유다 땅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고 기술함으로써(스 9 - 10장), 에스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개혁에 힘쓴 가장 '제의적인 모델', 즉 예루살렘의 정통 제사장(יְהוֹנָדָה 코헨 혹은 יְהוֹנָדָה 하코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⁷⁾ 이처럼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정통 제사장으로 해석되고 있는 초기 문서층에서 그의 중점 사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암 하레츠/그 땅의 사람들)과 유다 지도부의 정략적인 혼인 문제를 처결하고 '속건제'를 시행함으로써(스 10: 19) 유다 공동체의 순수한 정통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다.²⁸⁾ 그리고 그러한 개혁적인 사역이 강조될 때에 에스라의 직분은 페르시아의 '학사(자료층에서 기인된)'가 아닌, '이스라엘의 정통 제사장'으로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예루살렘 제사장 중심적인 역사 서술 방식'으로 역사를 재해석하는 것은 초기 역대기 사가의 중요한 신학적 사상적 특징에 속하는 것이다. 사마리아에 대응하기 위한 초기 역대기 사가의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중심적 세계관'²⁹⁾이 에스라의 위상 - 예루살렘의 정통 제사장 - 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³⁰⁾

다른 문서에는 어느 곳에서도 사독이 엘르아살이나 아론과 연계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서는 역대기의 족보가 '제사장적 서기관들'의 인위적 창작성 때문이라고 본다. M. D. Rehm, "Zadok The Priest," *JDBSup*,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976-77쪽.

27) 그러나 민 경진은 문서층의 삶의 자리에 따라 에스라의 역사적인 상과 해석된 상을 구분하지 않고, 역대기 사가(초기 편집자)가 에스라를 예루살렘의 정통 제사장으로 해석한 것을 에스라의 실제 역사적인 상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실제 에스라의 역사적인 상은 정통 제사장이 아닌 '페르시아의 학사'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3장 참조; 민 경진, 「에스라 느헤미야 연구」(서울: 한울 출판사, 1995), 104-105쪽 참조.

28)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80-97쪽 참조.

29) 제사장 중심적 세계관에 관해서는 김 윤이, "윗글," 참조; 그러나 역대기 역사서의 후기 편집층에서는 '남 유다와 예루살렘 제사장 중심적인 특성'이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과 온 백성들이 협력하는 '온-이스라엘 총화적인 세계관'이 드러난다.

30) 페르시아 왕의 공식학사로서 친-페르시아적 인사인 에스라가 유다의 순수성을 위해서 개혁을 주도한다는 것은 역사적인 개연성이 떨어진다. 오히려 그의 개혁기적인 면은 초기역대기사가의 신학적 해석으로서, 공동체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라의 위상을 '민족주의적이며 개혁기적인 정통 제사장'으로 해석함으로써 종교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2) 초기 편집층의 삶의 자리(반-사마리아적인 삶의 자리)

에스라가 제사장으로서 강조되고 있는 초기 편집층의 삶의 자리는 유다 속령의 모든 재정적 권한이 제사장에게 위임되어 있으며,³¹⁾ 제국과 예루살렘의 제사장들의 관계가 상당히 우호적인 시대였던 페르시아와 헬라 초기 시대라고 할 수 있다.³²⁾ 이 시기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종교적 문제는 '사마리아의 분열'로서, 초기 편집층은 사마리아와의 갈등과 분열의 역사와 밀접히 관련된다.³³⁾ 사실 본격적인 사마리아와 유다의 갈등의 역사는, 5세기말 산발랏 1세와 4세기 후반의 산발랏 3세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집단과 연대하여 - 결혼을 통하여 - 예루살렘 제의에 공식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한 데서 시작되었다. 결국 야훼 제의가 경쟁적인 두 개의 정치 중심지로 분열됨으로써 야훼 제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 사마리아와 유다 공동체의 구성원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까지 - 어느 성소를 통하여 신앙적 지도를 받아야 하며, 어느 성전에 성전 세와 제물을 바쳐야 하며, 어느 제의에 참여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남게 되었다.³⁴⁾ 이와 같이 사마리아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제의 처소가 두 개로 양극화되는 종교적 사회적 혼란과 위기의 시기(대략 페르시아 후기로부터 헬라 초기 알렉산더 전후 시기)를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문서층이 '반-사마리아적으로' 형성되던 시기라 할 수 있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이미 우위를 점해왔으며, 이제 종교에서도 우선권을 획득하기를 획책하는 사마리아로부터 유다 공동체는 신앙적 정통성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정통 신학을 강조하는 정책을 수행해야만 했다. 사실상 야훼 제의 내의 분열의 상황에서 순수성의 강화는 정통성 확보의 요지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미약한 유다 공동체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수 있다.

31) 스 7장 17-20에 따르면 그러한 정통 제사장인 에스라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권과 유다의 재정권이 부여되어 있다.

32) 김 윤이, "윗글," 80-97쪽 참조.

33) Richard J. Coggins,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Atlanta: John Nox, 1975), 114f.

34) 두 성전 중에 어느 것이 더 거룩한지에 관한 알렉산드리아의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논쟁 참조: Antt. XII, 74-9; 성전 제물에 관한 논쟁도 참조: Antt. XII, 10. 참조: 존 브라이트, 「이스라엘 역사」, 590쪽 참조.

3) 신학적인 의미

위와 같이 반-사마리아적인 초기 역대기 사가의 삶의 자리에서 에스라의 위상은 페르시아의 학사가 아닌 '정통 대체사장 계열의 제사장'으로서, 무엇보다도 그 땅의 사람들(사마리아 중심의 공동체)과의 결혼을 취소하고, 유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키는 역할로 재해석되고 있다(스 9 - 10장). 정통 제사장으로서 해석된 에스라의 주요 과업은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던 경쟁자들, 즉 사마리아 공동체에 맞서는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야훼 제의 내의 분열(스 4: 1-3)이라는 위기의 상황에서 에스라는 매우 단호한 방식으로 그러한 위기를 관리함으로써 '유다 종교의 순수성'을 지켜낸 정통 예루살렘 제사장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와 같은 그의 사역에 맞는 그의 위상은 페르시아의 학사가 아닌 예루살렘의 정통 제사장으로서 유다의 정통성을 확보하는 인물로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이 초기 편집층에서 에스라는 모든 재정을 관리하여 예루살렘의 제사를 주관하며, 특히 백성들이 '그 땅의 사람들'과의 통혼으로 죄를 지었을 때, 그 문제를 처결(결혼취소)하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속건제를 드리는 역할이 강조된다. 초기 편집층에서 편집자는 에스라의 가계를 신학적 동기에서 정통 제사장으로 해석하였으며, 페르시아의 공식 비서관(학사) 그 이상의 임무와 역할 - 사마리아의 교활한 도전에서 야훼이즘의 정통성과 유다의 순수성을 확립하는 제사장의 사역 - 을 강조하여 역사를 재해석함으로써, 정치적으로 거대한 야훼 공동체를 표방하며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의 순수성을 침식하려는 사마리아의 도전에 신학적으로 대응한다.

5. 재해석된 에스라상 - '기능이 확대된 학사'로서의 에스라상

1) 본문의 내용과 해설

느 7장 73절 - 8장 18절의 에스라의 율법 낭독 장면은 '온 백성들의 연대감'을 강조하는 후기 역대기 사가의 역사 서술이다. '모든 백성'이라는 표현이 이 장면에서만 10회나 반복되며(느 8: 1, 3, 5, 5, 5, 6, 9, 9, 11, 12), 또 '온 백성'의 의미는 초기 문서층에서 표현된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이나 혹은 '귀향민 공동체(골라 공동체, 느 8: 17a)³⁵⁾'가

아니라, ‘남자 여자 무릇 아이들을 만한 온 회중(느 8: 2, 3)’으로 명시되고 있다. 본문에서 최종 편집자는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와 레위인들과 온 백성이 총 협력하여 아훼의 율법을 수행하는 ‘온-이스라엘의 총화’ 의도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으며(느 8: 2, 3, 7, 8, 12),³⁶⁾ 에스라의 위상은 단순히 페르시아의 서기관(자료층의 위상)이나 제사장으로서(초기 문서층의 위상)가 아니라, ‘그 역할이 매우 확대된 온-이스라엘의 통합적인 학사’로서 종교계 정치계 지도자들과 총 협력하여 온 백성들에게 토라를 가르치고 권면하여 범-민족적 총화를 이루어내는 협력적인 지도자 상으로 재해석되고 있다.

동일한 맥락에서 느 12장 1-26절에서는 분화된 레위인들의 명단과 더불어 제 1 차 스룹바벨의 귀환 세대와 에스라와 느헤미야 세대의 명단이 동일선상에 기록되고 있다. 최종 편집자는 온-이스라엘의 통합이라는 신학적인 목적을 위해서 ‘여러 세대를 압축해서 동일 선상’에 함께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느 12장 26절에서는 포로기 이후 유다 역사에서 뛰어난 세 인물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면서,³⁷⁾ 대제사장인 요아김, 그리고 지방장관(폐하)인 느헤미야,³⁸⁾ 마지막으로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 순으로 기록함으로써 에스라를 ‘온-이스라엘 총화’의 중심적 인물로 재해석하고 있다.

느 12장 27-43절은 느헤미야 사역의 절정 -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 - 에 대한 역사 서술로서, 여기서도 최종 편집의 특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36절에서 따르면 우편의 찬양대는 에스라의 ‘선두’ 하에 호세아와

35) 그러나 느 8: 17은 귀환과 회복의 사건을 ‘제 2의 출애굽’으로 묘사하는 시도에 집중되어있다. 이 구절에 있는 두 개의 중요 요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무리(17a절)’ 표현과 귀환민들의 초막질 행사를 강조하여 역사를 서술하면서 ‘여호수아의 시대의 것과 같다’고 해석하는 것은 귀환자 공동체를 독려하는 초기 편집층적인 요소가 강함을 알 수 있다. 트론티트, 윗글, 149쪽 참조.

36) 초기 문서층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의 순수성(정통성 혹은 배타성)을 강조하며 ‘그 땅의 사람들(사마리아 중심의 공동체)’과의 분리를 강조하였지만, 후기 문서층에서는 ‘온-이스라엘적 총화’를 조성하는 역할을 한다.

37) 마이어스, 윗글, 247쪽.

38) 여기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관직명으로서의 ‘총독(티르샤타)’가 아닌, ‘폐하’로서 ‘지방장관급(방백)’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후기 편집자의 의도일 것이다. 역대기 역사서의 최종 편집자는 에스라가의 위치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최대한 확대시키고 있는데, 후기 문서층에서 ‘학사’라는 의미는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총독에 버금가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관직명과 동일한 의미를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방백들, 성가대, 7명의 제사장, 성가대 선창자, 그리고 8명의 나팔수들이 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결과 느 12장 32-42절의 찬양대에 관한 본문의 최종적인 문학적 구조에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하는 명확한 대칭 구조'를 갖게 된다.³⁹⁾ 여기서 학사 에스라의 모습은 단순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가 아닌 '온-이스라엘의 대표'로서 온 백성과 찬양대의 선두에 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회복 공동체의 구성에서 중시되는 두 개혁자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통합, 여러 내러티브의 관심들 - 성벽, 율법, 성전 그리고 백성 - 이 하나로 연합하는 극적인 순간에 성벽에서 '두 무리를 상징적으로 결합시키려는 의도'와 그러한 결합의 중심에 '학사 에스라'를 세워 두려는 의도를 가지고 현재 본문과 같이 편집되고 있다. 동일한 관점에서 스 7장 6-10절에서도 에스라와 함께 귀환한 협력자들(이스라엘 자손, 제사장, 레위인, 찬양단, 성전 문지기, 막일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레위인의 역할이 후기의 상황을 반영한 분화되고 확장된 모습을 보여주는 점과 하나님께의 토라에 대한 '학사 에스라'의 사역을 강조하는 것은 역대기 역사서의 후기 편집에 속하는 것이다(스 7: 6). 위의 본문들에서 에스라는 단순히 페르시아 서기관(학사)이 아니라, 그 권한이 매우 총체적으로 확대되어 온 백성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온-이스라엘의 총화적인 학사'로서의 위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2) 후기 편집층의 삶의 자리(온-이스라엘 총화적인 삶의 자리)

프톨레미 왕조의 유다 통치는 안티오크스 4세(175-163년)의 폭정 이전까지는 페르시아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전통적인 종교 의식들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이 유대 민족과 성전의 정상으로 유지되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예루살렘에는 대제사장 외에도 유대와 성전의 재정을 책임지는 '성전 재정 관리관'이 공존하였으며, 이 성전 재정 관리관은 대제사장과는 독립된 헬라 정부의 관리였다(마카베하 3: 4-6). 이로 인하여 국가의 수입과 관련된 조직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대제사장의 재정적 정치적 권한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반면에 대제사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귀족층과 교육을 받은 '중간 귀족층

39) 트론트비트, 윗글, 168-175쪽 참조.

(게루시아)의 형성'이 뚜렷이 나타나게 된다.⁴⁰⁾ 게다가 알렉산더 이후에도 헬라적인 도시들은 계속해서 생겨났으며, 비교적 안정적인 헬라 시대가 1세기 이상 지속되면서 헬라 문화는 급속도로 유대인 공동체 내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에 이른다(마카비하 4: 12). 결국 헬라라는 거대 외세의 지지 세력들은 점증적으로 확장되어 간 반면, 대체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 공동체의 신앙적인 전통들은 점점 위축되어 가는 상황이 지속되었다.⁴¹⁾ 이러한 '반-민족적 반-종교적 상황'이 후기 역대기 사가가 '온-이스라엘의 총화적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이스라엘의 전통들을 수호하기 위해서 역대기 역사서의 '후기 편집층'을 형성하게 된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⁴²⁾ 헬레니즘이라는 거대 외세의 위협에 직면하여 유다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전통적 신앙을 보존해야만 하는 신학적 위기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3) 신학적인 의미

후기 역대기 사가는 헬라에 침식당하지 않기 위해서 '온-이스라엘의 총화와 야훼 신앙의 위대함'을 극대화함으로써 방어한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제의 제도들과 토라의 정통성을 다시 한 번 강화시켰으며,⁴³⁾ 헬라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대거 협력하고, 그 역할들이 더욱 분화되고 강화되기에 이른다.⁴⁴⁾ 그 결과 레위인의 지위와 명예가 크게 상승되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사이의 오랜 갈등이 해소되었으며,⁴⁵⁾ 이러한 범-제사장 계층의 대 통합은 사회적 대 통합의

40) 키펜버그는 기원전 3세기 말경 평신도 집단인 게루시아에게 각종 조세 감면을 통해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고 설명한다. H. G. Kippenberg, *Religion und Klassenbildung im antiken Judäa* (SUNT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82-86쪽 참조; 이렇게 게루시아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얻게 된 것은 프톨레미 왕조와 셀류커스 왕조의 정치적 주장인 '분할과 지배'(divide et impera)에 잘 상응한다.

41)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대 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제 26집 (2003년, 겨울), 132-149쪽.

42)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85-97쪽 참조.

43) 새롭게 증대된 레위인들의 활동에 대하여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다양하게 보도한다: 베헤 운반자 (대상 15: 2, ...), 성가대 구성원 (스 3: 10; 느 9: 5; 느 12: 8-27; 대상 9: 33f.; 16: 4; 대상 25장; 대하 5: 12; ...), 성전 건축 감독자 (스 3: 8-9), 성전 수위대 (대상 23: 5; 대상 26: 1-19), 창고 관리인 (대상 26: 1; 대상 26장 20-28 ...), 서기관 (대상 24: 6; 대하 34: 13), 말씀의 교육자/율법 교사 (느 8: 7-9; 11-13; 대하 17: 7-9; 참조 대하 31: 4; 34: 30), 재판 (대상 26: 29).

44) 이러한 과정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계급적 구별은 철폐되어져 갔다.

45) 한 동구,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제 21집 (2006년), 10-31쪽 참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대 통합의 시대에 에스라의 위상은 '온-이스라엘의 총화를 이루어내는 중심적인 지도자'로서 재해석되고 있다. 이와 같이 역대기 역사서 후기 편집층에 나타난 '그 역할이 확대된 학사 겸 제사장'으로서의 에스라의 위상은 거대한 헬라 세력에 신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레위인들과의 대거 협력을 통하여, 전통적인 토라의 경건을 강조하며 '온-이스라엘의 총화'를 기초하는 '온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도상'으로서 재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6.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에스라에 관한 다양한 호칭과 역할 그리고 그 신학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유다 포로 후기 공동체의 역사적 특성을 고려하여 문서층별로 고찰함으로써 역대기 역사서 속에 나타난 다양한 에스라 상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자료층에서는 '페르시아 아다사스다의 공식적인 비서관인 학사'(חֲסִיָּא שַׂפָּרַר 혹은 חֲסִיָּא שׁוֹפֵר/대사, 관리, 서기관)로서, 율법을 페르시아의 국법(תִּקּוּ דַּרְט)으로 실행하여 귀향민들을 안정화시키며 그들의 삶을 신앙적 전통과 연결시키는 '학사 에스라'로서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 둘째로 역대기 역사서 초기 문서층에서는 에스라의 '제사장'(הַכֹּהֵן 하코헨)으로서의 위상이 부각된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사마리아적인 삶의 자리에서 '사독 계열의 정통 사제 계열'로서 유다 공동체의 순수성을 수호하며 그 땅의 사람들(암 하이레츠)과의 통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서의 위상이 강조되어 있다. 셋째, 역대기 역사서 후기 편집층(최종 편집층)에서는 자료층과 초기 편집층에서 기인된 '제사장과 학사'(חֲסִיָּא הַכֹּהֵן 하코헨 하소페르)라는 호칭이 혼용되어 기록되어 있으나, 자료층 혹은 초기 문서층과는 다르게 '온-이스라엘의 총화적 역할'을 감당하는 '그 역할이 매우 확대된 학사로서의 위상'이 강조되어 있다. 즉 반-헬라적인 삶의 자리에서 레위인들과 협력하여 온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총화될 것을 가르치는 '범국민적 지도자(대표자)'로서의 에스라 상이 부각되어진 역사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와 같이 에스라의 지위와 역할은 그 역사적 삶의 자리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되고 신학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페르시아의 학사'였던 에스

라는 반-사마리아적인 삶의 자리(초기 편집층의 삶의 자리)에서는 '예루살렘 정통 제사장'으로서, 반-헬라적인(혹은 반-외세적인) 삶의 자리(후기 편집층의 삶의 자리)에서는 '온-이스라엘의 총화적인 학사'로 각각 재해석되어 신학화되고 있다. 역대기 사가는 역대기상하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다윗을 자신들의 이상적인 지도자 상으로 신학화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페르시아 시대 이후의 역사 - 에스라-nehemiah서 - 를 기록하면서 에스라를 삶의 자리에 따라서 신학적으로 재해석함으로써 자신들의 신앙적 모범과 척도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⁴⁶⁾

7. 참고문헌

- 김 경래, "구약 본문 전래 과정에 대한 연구," 「성경원문연구」 제 1호, 149쪽.
 _____, "비블리아 헤브라이카 키타 연구," 「성경원문연구」 제 1호, 120-121쪽.
 김 윤이, 「역대기 역사서의 초기 편집층 연구」 평택대학교 학위 논문, 2006년.
 _____, "역대기 역사서의 편집층 연구," 「구약논단」 제 22집 (2006년 12월), 80-97쪽.
 노트 마틴, 「이스라엘 역사」 (박 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1).
 _____, 「전승사적 연구들」 (원 진희 옮김), (서울: 한우리출판사, 2004). 원제는 M. Noth, *Überlieferungsgeschichtliche Studien: Die sammelnden und bearbeitenden Geschichtswerke im Alten Testament*(1943; 1957), (Tübingen: Max Niemeyer Verlag, 19673).
 텔리취 카일, 「에스라-nehemiah· 에스터 주석」 (서울, 기독교 문화사, 1987).
 마이어스 제이콥 엠, 「에스라-nehemiah (국제성서주석 14)」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3).
 원제는 Myers Jacob M., *Ezra-Nehemiah*, (International Biblical Commentary), (New York, Garden City, 1981).
 민 경진, 「에스라-nehemiah연구」 (서울: 한들 출판사, 1995).
 바울 성경 연구 씨리즈, 「에즈라-에스터」 (서울: 도서출판 바울, 1986).
 오 원근, "제 2 성전기 개찬성경의 유대주석전통상의 위치," 「구약논단」 제 22집(2006년 12월), 129-142쪽.
 브라이트 존, 「이스라엘 역사」 (박 문재 옮김), (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1993) 원제는 J. Bright, *A History of Israel*, (London: Adam & Charles Black, 1960).
 슈미트 베르너 한스, 「구약성서 입문 I」 (차 준희/채 홍식 옮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원제는 Schmidt Werner H., *Einführung in das Alte Testament*, (Berlin:

46) 페르시아 제국은 감찰관들을 파견하여 민족들을 관리하였기 때문에 반란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는 '다윗 계열의 왕족'을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지도자 상으로 해석하는 데는 정치적 위험이 컸다. 오히려 당대의 친-페르시아적인 역사서술에서 이상적인 지도자 상으로는 제사장이나 율법학사 같은 종교적인 위상이 적합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 왕조에 대한 신학적인 해석이 에스라-nehemiah서에는 역대기와 비교할 때 거의 드러나 있지 않으며, 그러한 신학적인 인물이 '다윗 왕조'에서 '에스라'로 대체되고 있는 것이다.

- Walter de Gruyter, 1995).
- 윌리엄슨 H. G. M., 「에스라·느헤미야 (WBC주석 16)」 (조 호진 옮김) (서울: 솔로몬 출판사, 2008). 원제는 H. G. M. Williamson, *Ezra, Nehemiah* (WBC 16), (Waco, Texas: Word books, 1985).
- 임 태수, 「역대상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장 춘식, 「에스라·느헤미야 성서주석」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주교회의성서위원회편찬, 「역대기상·하 에스라·느헤미야 (구약성서 새 번역14)」 (정 태현 / 임 승필 옮김), (서울: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1998).
- 최 종진, “역대기 저자의 신학,” 「구약논단」 제 27집 (2008년 3월), 138-141쪽.
- 트론트비트 마크 에이, 「에스라-느헤미야(현대성서주석)」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1). 원제는 Throntveit, Mark A., *Ezra-Nehemiah* (Interpretation), (Louisville, John Knox Press, 1992).
- 한 동구, “헬레니즘이 유다문화에 미친 영향,” 「현상과 인식」 제 26집 (2003년 겨울), 132-149쪽.
- _____, “포로기의 제사장과 레위인의 관계,” 「구약논단」 제 21집 (2006년), 10-31쪽.
- Brueggemann, W., 「구약신학과의 만남」 (차 준희 옮김), (서울: 프리칭아카데미, 2007).
- Coggins, R. J., *Samaritans and Jews: The Origins of Samaritanism Reconsidered*, (Atlanta: John Nox, 1975).
- Kippenberg, H. G., *Religion und Klassenbildung im antiken Judäa* (SUNT 14)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82).
- Rehm, M. D., “Zadok The Priest,” *IDBS*, (Nashville: Abingdon Press, 1976), 976-977쪽.
- Vermes, G., *Scripture and Tradition in Judaism: Haggadic Studies*, (Leiden: E. J. Brill, 1973).

검색어

레위인

학사

반-사마리아

헬라 시대

역대기 역사서

투고일: 2008년 4월 12일

심사일: 2008년 5월 23일

게재확정일: 2008년 6월 18일

Who is Ezra?

Yoon-Yee Kim

Lecturer at Seoul Theological University
Pyeong Taek University, Ph.D.

Various portrayals of Ezra, as scholar or priest, or 'priest and scholar', are found in Ezra-Nehemiah. The portrayals were established as many theological understandings of him at that time and afterwards have been attributed to. This article purports to analyze historical Ezra and later interpretations of him editorially layered thus finding the historical causes and intentions of the theological interpretations of him, and, also, figuring out the development of the history of the Chronicles, its *Sitz im Leben* and theological orientation.

First, in the source-layer of the books, Ezra is prominent as a scholar (סֹפֵר) who was an official scribe (סֹפֵר ambassador, official, scribe) of Persian Artaxerxes, executing the Law as the Persian constitution (דָּרָה), and uprighted the Judean ministration stabilizing the Returnees to have resorted to their religious traditions. Second, Ezra is prominent as a priest (הַכֹּהֵן) in the early documents of the historical accounts of the Chronicles. He is understood as an orthodox Zadokite priest in the anti-Samaritan context, who strived to preserve the integrity of the Judean community, taking charge of the financial affairs in Jerusalem,

the rituals of the people and their problem of intermarriage with 'the people of the land'. Third, even though the mixed title 'the priest and scribe (הַכֹּהֵן הַסֹּפֵר)', which is derived from the source-layer and the early editorial layer, are attributed to him in the late editorial layer (the final edition) in the historical accounts of the Chronicles, Ezra's very much expanded role, unlike the former two layers, as a scribe taking charge of whole Israel's total consensus is significantly told to confirm a solid identity of 'whole Israel'. That is, ultimately, Ezra was interpreted as a leader (representative) of entire nation, who was supposed to instruct the entire people to unite in the Law along with the Levites, especially in the anti-Hellenistic time.

It may be concluded that Ezra's status and role were diversely interpreted in the various historical context of each editions. Ezra, a scholar of Persia, was portrayed, i.e., re-interpreted, as an orthodox priest of Jerusalem in the anti-Samaritan context (the early editorial one) by the early historian of the Chronicles, and then as a scribe taking charge of whole Israel's total consensus in the anti-Hellenistic (or anti-foreign) context (the late editorial one) by the late historian of the Chronicles, respectively. The Chronicles historians, just as they interpreted David as their ideal leader in their record of the Israelite history, interpreted Ezra in their record of the post-Persian history according to their own *Sitz im Leben*, portraying him as their role model.

Keywords

Levites
Scribe
Anti-Samaritanism
Hellenistic Period
The Chronicler's History